

인간의 패역과 하나님의 자비

■ 이종윤 원로목사

인간의 극에 달한 악인의 패역상을 보고 한 시인이 탄식을 금치 못한다. 저들의 안중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오히려 자기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벌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거기에 자기 마음에 아첨하는 ‘자궁’ 까지 했다.

창조주께서는 지혜와 선을 말하는 도구로 사람에게 입을 지어 주셨건만, 저들 악인은 그 입을 악과 거짓을 토하는 분화구로 악용하고 있었고, 낮에 악을 행한 사람도 밤에 침상에 들게 되면 자신을 반성하고 과오를 뉘우치는 수가 있는 법이거늘, 저들 악인은 참회는 커녕 저들의 침상을 더 큰 악을 계획하는 온상으로 삼고 있었다. 저들은 외부로부터의 유혹에 의해 피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를 좋아하여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다. 더구나 방관할 수 없는 일은 저들은 이러한 패역한 생각과 행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삭이며 충동하여 저들의 동조자를 점차 확산시켜 간다는 사실이다. 안하무인격인 악인의 배신과 패역상을 보고 개탄함을 금치 못했던 시인은 주님의 존귀한 품성을 상기하며 찬양을 마지않는다. 악이 극에 달한 세상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신망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복이다. 시인은 여호와와 인자와 성실에 감탄한다.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는 말은 악인의 패역을 초월하여 주의 인자가 존대하다는 뜻이고,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는 말은 인간의 불성실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는 그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주신다는 뜻이다.

시인은 계속하여 여호와와 공의와 심판을 믿고 찬송한다. “공의가 산과 같다” 는 말은 여호와와 공의의 견고성과 엄위성, 불변성과 부동성을 나타내고, “판단이 바다와 같다” 는 말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여호와와 심판의 깊이와 신비함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여호와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짐승도 보호하시고, 짐승도 필요한 것만 아니라 불필요해 보이는 것까지도 보호하신다. 하물며 인간이라!

여호와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균등하게 분배하시고, 공기를 고루 할당하시며, 우로를 차별 없이 내리신다. 배불리 먹고 충분히 마시며, 벌써 멀쩡되었어야 할 인간들이 오늘까지 생존함도 바로 이 까닭이다.

악을 선으로 착각하는 자들의 세계관과 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의 세계관을 말한 시인은 결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의인의 필연적인 기원을 들을 수 있고 시인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과 의인이 의인으로 대접받는 사회라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오만한 악인들의 불손과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다. 악인의 재기가 허용되지 않는 시대라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확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우리가 심판에 대한 생각을 꺼리는 이유가 그 심판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날을 우리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심판날에 구원 받는 이나 형벌 받는 이의 정도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다를 것이다. 두로와 시돈의 심판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받을 심판보다 견디기 쉬운 것이라 하셨다. 소돔의 형벌이 가버나움의 받을 벌보다 가벼울 것이라 하셨다. 두로 시돈 소돔의 백성들은 악한 자로 형벌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을 듣고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형벌보다는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형벌에 차등이 있다. 가장 악한 죄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행한 것을 기록한 책들에 따라 공평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구원도 간신히 볼 가운데서 구출 받은 롯과 같은 이의 구원도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그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게 전가되어 경죄하는 심판 없이 자비의 구원을 얻는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돌리자!

-한국장로신문 [제 1606호] 2018년 8월 11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ess Aeso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14:32-42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Good and Bad Examples" Pastor
* Hymn	484 (Be Thou My Vision)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 (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 (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 (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 비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네(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례시, 수버스, 이경협,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석순(군선교)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주의 길을 예비하라

■ 눅 3:1~6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길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길, 영적인 길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의 길을 통해 오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막히기 전에 닦은 시몬의 대로를 열라고 했고, 이사야는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마음의 길은 천국으로 통하는 길이요, 주님이 들어오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1. 서로 갈라진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라

골이 깊다는 것은 너무 어두워서 서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전혀 교류와 협력이 불가능한 상태, 단절되어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골짜기를 메우지 않으면 은혜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모 룩스’는 빛의 인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빛을 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은 빛을 본 벌레처럼 혼비백산해서 달아날 것입니다.

2. 높아진 마음의 산을 깎아야 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삼은 자는 항상 그 앞에 복종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교만은 우월감과 열등감의 양면으로 나타납니다. 잘났다고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피해의식과 패배의식에서 비롯된 열등감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결코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약 4:6). 교만은 주님을 차단하는 바리케이드입니다. 교만은 영생과 축복을 차단하는 바리케이드입니다.

3. 굵은 마음의 곡선을 곧게 펴야 한다

본문의 굵은 것은 꼬부라진, 비뚤어진, 비비꼬인 성품, 편협한 주관과 선입견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굵으면 무엇이든지 삐뚤어지게 생각합니다.

“멸망의 기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막 13:14). 말세가 다가올수록 멸망의 기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됩니다. 불법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악한 인간들이 거룩한 성전에 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편견과 주장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서고, 이들은 돈을 주고 이방인들을 데려다 채워 놓습니다.

사단은 위장된 정의를 내세우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이리는 양의 털을 쓰고 광명하 천사처럼 가장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리의 목적은 양을 잡아먹기 위한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면서도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거룩한 우리 교회,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뚱신 교회에 가증하게 들어선 타락한 세력, 불법과 타락한 교권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맺는 말

굵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곧게 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들면 굵은 것을 곧게 펴 수 있습니다. 퍼진 인생 가운데 축복과 행복이 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후 7:1). 성도가 굵은 마음을 곧게 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화입니다. 거룩함만이 굵은 마음, 속된 마음, 교인 마음을 바르게 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기독교 역사에 걸출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에게게도 모두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앞에 거친 돌이 있고 평탄하지 못한 길이 있느냐? 너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험한 길을 부드럽고 평탄한 그리스도의 길로 만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5시 ·인도: 서명철 목사, 설교: 심우진 목사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양춘경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목 도 다 함 계

성 시 시 119:1-3 인 도 자

찬 송 521(253) 다 함 계

기 도 한주찬 집사

성 경 마 28:16-2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천국 복음" 설 교 자

* 찬 송 285(209) 다 함 계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계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기 도 김미성1 권사

성 경 막 2:18-2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Sermon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 설 교 자

(The Lordship of Christ)

* 찬 송 Hymn 549(431) ... 다 함 계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계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안효주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눅 3:4)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부								
수요 II부	은 빛	박래경	김예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뱃비 전도회 월례회 직장부 / 4일(주) 1부예배 후 1층 후문
2. 사명자대회 본부 모임 / 매주 오후 3시30분 1층 후문
3. 정기당회 / 7일(수) 수요일예배 후 가이오실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사-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디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사-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사-2시
11.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노선균(흉부외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 결 혼</p> <p>1. 최용 군(최병오 씨, 강영자 씨의 장남)과 탁경희 양(3교구 탁병준 집사, 이희숙 집사의 장녀) / 11월10일(토) 오전 11시30분 CJ인재원 그랜드홀(2280-3060) / 3,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p> <p>◆ 장 례</p> <p>1.故 이강만 님(14교구 이영재 집사의 부친) / 30일(화) 별세, 11월1일(목) 발인</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909명	226명	215명	1,350명	130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0/2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 28일	헌 금	38,016,000	
	말씀봉사비		18,010,000
	급 여		33,084,000
	찬양대사례비		12,350,000
	교회학교사례비		9,770,000
	선 교 비		34,196,620
	비전2020		7,08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예수금		7,812,350
	지원교회		3,000,000
	인 건 비		7,943,650
	교통통신비		381,920
	수도광열비		79,700
	차량유지비		302,000
	소모품비		549,460
	수선유지비		890,800
	식당운영비		1,128,030
	합 계	38,016,000	136,828,530